

긴급 통지 :

연길 , 2,484 명 피해자
1,571 만원 피해금액 수령하세요 !

21 일 오후, 연길시인민법원은 법원의 위촉 공식계정을 통해 <집행 신청자들에게 통지하여 집행사건 대금을 수령할 데 관한 연길시인민법원의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행신청자들에게 통지하여 집행사건 대금을 수령할 데 관한 연길시인민법원의 공고

본 법원은 김문주(金文珠), 김풍련(金凤莲), 고효하(高晓霞)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사건(형사사건 이유는 피고인 김문주, 김풍련, 고효하가 대중 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한 죄로 연변우미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延边友米网络科技有限公司]와 관련됨)을 집행하고 있는데 압수된 대금 1,571 만 2,419 원 95 전을 장조강 등 2,484 명 모금 참여자에게 비례에 따라 배상한다. 현재

최고인민법원의 <금품(款物) 집행관리사업에 관한 규정>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에 근거하여 여러 모금 참여자들은 본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15 일내에 유효 신분증명 및 개인 수금 계좌 정보(은행 지행명칭 포함) 등 자료를 휴대하고 연길시인민법원 재판구 105 실에 와서 집행금 수령 수속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기한이 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모금 참여자들의 관련 금액은 잠시 본 법원에 보관한다.

연계인 : 연길시인민법원
집행국 하법관
연락처 : 0433-2586325

이에 공고한다.

연길시인민법원
2025년
5월 21일



화룡시

간부 가족과 함께하는 청렴교양활동 조직

5월 16일, 화룡시규률검사위원회 회갑찰위원회는 화룡시당위 조직부, 화룡시부녀련합회와 공동으로 ‘가정조렴 행복단란’(家庭助廉·幸福团圆)을 주제로 2025년 전 시 부 분적 과장급 간부의 가족을 대상으로 청렴교양활동을 조직했다. 이번 활동은 간부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조직+가정’의 이중 방어선을 공고히 구축하고 청렴한 정치적 생태의 조성에 ‘가정’의 힘을 불어넣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었다.

활동에서 <정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정과 사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자>를 제목으로 한 청렴 가정편지가 간부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어 화룡시부녀련합회 주석 안현숙이 ‘청렴가풍 제안서’를 낭독하고 가정 책임, 도덕구범, 청렴서약 등 다각도로 단순히 ‘행복의 동반자’에 머물지 말고 청렴의 ‘파수군’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간부 가족들에게 당부했다.

현장에서 주최측은 간부 가족들에게 ‘청렴가풍카드’를 발급하고 경 시교양영화 <가풍의 거울>(镜鉴家风)을 함께 관람했다. 화룡시당위 당학교 부교수 허회군이 “옳바른 가



풍으로 청렴 정치를 꽃피우자’를 주제로 특별 강연, 가정이 청렴문화의 토대가 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론 의했다.

료해에 따르면 화룡시규률검사위원회갑찰위원회는 청렴가풍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새시대 청렴 문화사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고 있다. 동시에 ‘청렴화풍’ 위 첫 공식계정에 가풍 특집 코너를 개설하고 화룡시교육국 등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청소년 청렴가풍 이야기대회’, ‘가풍전사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의 물결’이 가정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당원간부들이 청렴하게 사업할 수 있는 정치적 생태와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에 가정의 힘을 모으고 있다.

/ 오건기자



매하신구 경찰, 관광객 신고 4 시간 만에 해결

최근, 매하신구(매하구시) 공안국 리로파출소에 올음 섞인 신고전화가 접수되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 리녀사가 해룡호관광지에서 4 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분실했던 것이다.

신고 접수후 리로파출소 부소장 장봉석은 즉시 ‘관광 관련 상황 우선 처리’ 체계를 가동했다. 료해에 따르면 리녀사는 당일 리로향의 광복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 한 팔찌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신구의 분실로 인해 즐거웠던 가족관광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관광객의 어려움과 고민이 바로 우리의 사업 방향입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수색에 돌입했다. 한 팀은 관광지부터 슈퍼마켓까지 3킬로미터 구간 내 27 곳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8시간이나 되는 영상 기록을 분석했다. 다른 팀은 인근 상점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리녀사가 보행하던 중 팔찌가 흘러내렸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 팔찌를 주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영상 화질이 흐려 신원 특정이 어려웠다.

단서가 끊기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경찰은 주변 주민들의 생활 패



턴과 결합하여 가능한 경로에 있는 45 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진행했다. 4시간의 끊임없는 집중 방문 끝에 마침내 열정적인 주민들로부터 “이웃 마을의 왕씨가 팔찌를 주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경찰이 사정을 설명하자 왕씨는 리해를 넘어 적극 협조하며 직접 파출소로 팔찌를 전달했다. “정말 다시 찾을 줄 몰랐어요!” 금팔찌를 돌려받은 리녀사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의 손을 잡고 “매하신구 경찰의 친절함이 가족 같은 온기를 주었다. 이 도시는 다시 찾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감동을 전했다. 그후 며칠 뒤 리녀사는 직접 전리 길을 달려 파출소에 감사기를 전달했다.

/ 오건기자

/ 사진 매하신구
공안국



최고인민법원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 새 사법해석 발부

20 일,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발부되었다. 사법해석은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 심리 기준을 한층 명확히 하고 정부정보공개 행정재판사업을 규범화했으며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정을 감독하고 지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 사법해석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2011년에 출범한 기존의 사법해석은 폐지된다.

알아본 데 따르면 새 사법해석은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의 접수 상황을 규정하고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

에서의 원고와 피고 자격을 명확히 했으며 피고와 원고의 입증 책임을 확정하고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 방식을 보완한 동시에 정부정보공개 소송에서의 예방구제제도 등을 보류했다.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정부정보를 공개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정보공개 행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답변을 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답

변 기한을 초과하여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동시에 피고는 자신이 한 정부정보 공개, 비공개 등 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청 청장 경보건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사법해석은 정부정보공개에 대한 군중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원고와 피고의 자격, 간이 절차의 적용, 재판 방식의 명확화, 법정 조건에서의 지급 실현 등 면에서 세밀하게 규범화하고 인도했으며 재판 기준을 더욱 통일하고 행정기

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정부정보를 획득하는 군중의 합리적인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켰다.

동시에 사법해석은 정부정보가 국가비밀과 관련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공공안전, 사회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증거 제시 책임에 대해 특별 규정을 제정하여 대중이 법에 따라 정부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는 외에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개인 사생활도 보호했다.

/ 신화사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고속 성장하는 e 스포츠산업, ‘올림픽’도 예정인 가운데 한국서 사기사건 속출

재유, 게임계정 사기당한 중국류학생 무료 변론 승소

5월 25일,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지난 15일에 한국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내린 한 판결서를 기자와 공유했다.

해당 사건은 재한 중국류학생이 게임계정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재유측은 이 류학생에게 근 반년간의 법률 소송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여 최근에 승소를 이끌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임산업, 불법거래 및 사기사건도 무시 못해

글로벌 e 스포츠(电子竞技)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세계 e 스포츠 시장 규모는 약 270.2억달러에 이르며 2033년까지 약 1,431.5억달러로 확대, 연평균 성장률이 20.34%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e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에 주목해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첫 ‘올림픽 e 스포츠 게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IOC와 사우디 간 12년 협약의 일환이며 e 스포츠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공식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 스포츠 즉 전자게임은 10 대나 20 대 등 젊은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30 대, 40 대, 50 대 등 다양한 연령대에 분포되어있다. 심지어 60

대의 게임마니아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계에도 게임마니아가 수도룩하다. e 스포츠산업의 급성장 리면에는 불법거래 및 사기사건도 함께 늘고 있어 지성인과 사회각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류학생 A 씨가 바로 게임계정 거래중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무료 법률 지원에 힘입어 가까스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었다,

사건 개요

2024년 5월 23일, 재한 중국류학생 A 씨는 피고 B 씨와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5월 24일 45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B 씨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피고 B 씨는 허위 비밀번호를 제공한 뒤 계정을 회수했고 A 씨는 계약 위반을 근거로 매매대금의 배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법제도에 익숙치 않았던 중국류학생 A 씨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끝내 정식 법적 절차를 밟으며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다.

법률구조

이 사건은 외국인 대상 공익 법률 지원을 지속해온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김용화변호사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해결됐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2014년에 설립된 11년래 언어 장벽과 제도에 대한 리해 부족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의 류학생과 근로자들을 위한 인권 및 법률 구제 활동에 힘써왔다.

담당 변호사 김용화는 디지털 자산인 게임계정이 실제 자산처럼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의 계정 회수 행위가 명백한 사기적 요소를 띤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배액 반환 및 민법상 약정 리자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라는 구조를 적용해 피해 회복을 위한 소장을 신속히 법원에 접수시켰다.

김용화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제도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류학생의 현실을 고려해 상담부터 소송,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지원했다. 원고 A 씨는 이 도움을 통해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법원 판결

지난 5월 15일, 한국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 B 씨가 소

장 부분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90만원과 2024년 5월 24일부터 완납일까지 년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금액은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 가집행을 허용했다.

이번 사건은 재한 외국인 피해자도 정당한 법적 절차와 법률 지원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e 스포츠 및 디지털 콘텐츠 관련 분쟁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률구조 제도와 전문 법률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처럼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 특히 한국 법률에 익숙치 않은 재한 중국인을 위한 공익 법률 활동이 확대된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 앞에서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유경봉기자

전화 : 13604447151
(위해 동일)



전동자전거 타고 변경마을의 평안 지키는 경찰들



“멀리서부터 여러분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낯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맙시다!”

경찰 허업우가 전동자전거를 타고 하저촌을 지나던 중 관할구역의 장씨와 이웃 리씨가 지붕 처마가 담장을

넘어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중재에 나섰다. 그가 이웃간에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설명하며 차분히 설득하자 랑측은 곧 화를 가라앉히고 분쟁을 해결했다.

발목, 나무 그늘, 광장 등 경찰들은 언제 어디서든 전동자전거를 멈추고 촌민들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눈다.

“요즘은 사기수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무슨 일든 조심해야 합니다.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송금도, 이체도 하지 마세요!”

경찰들은 촌민들이 농사일의 틈을 타 쉬고 있는 시간을 리용해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촌민들의 사기방지 의식을 높여주고 있다.

“일반 경찰차보다 경찰용 전동자전거가 훨씬 기동성이 좋아요. 경찰들에게 ‘빠른 다리’를 더해준 셈이죠. 촌구석구석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업무 효율도 오르고 촌민들과의 거리도 좁혀졌어요.” 보천산변경파출소 소장 리장화는 이같이 말했다.

현재, 보천산변경파출소 경찰들에게 전동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관할구역 주민들과 마음을 잇는 ‘결정다리’로 자리잡았다. 경찰들은 매일 전동자전거를 타고 촌길을 누비며 겉보기엔 사소한 ‘수다’ 속에서 이웃간의 갈등을 풀어주고 촌민들의 마음속 얘기에 귀를 기울이며 실제 행동으로 관할구역의 평화와 조화를 지켜내고 있다.

/ 정형관기자,

림준진(林俊辰),
류명양(劉明陽)

